

## ‘LG 구겐하임 어워드’ 올해 수상자는 ‘넷 아트 선구자’ 슈리칭

- 기술과 예술의 경계 넘나들며 선구적 예술활동 펼쳐온 아티스트

-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이 기술을 활용하는 혁신 아티스트에게 상금과 트로피 수여하는 ‘LG 구겐하임 어워드’...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 수상자 선정
  - 수상자는 1990년대 ‘넷 아트(인터넷을 활용하는 현대미술 장르)’ 선구자로, 30년 넘게 기술 활용한 예술적 실험 통해 장르의 경계 넘나드는 작품 활동 펼쳐
  - 5월에는 수상자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관객들과 만나 작품세계 소개 예정
- 미국, 이탈리아, 남아공 등에 위치한 세계적 명성의 미술관 큐레이터, 아티스트 등 구겐하임 측이 선정한 국제 심사단에서 수상자 선정
  - “특정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기술로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온 작가의 도전과 열정에 경의 표한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 밝혀
- ‘LG 구겐하임 어워드’ 트로피 ‘iF 디자인 어워드 2024’ 수상

LG와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이 2024년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도 슈리칭(Shu Lea Cheang, 鄭淑麗, 1954년생)을 선정했다.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LG가 세계 미술계를 선도해온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과 함께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예술활동을 펼치는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10만 달러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대만 출신 미국 작가 슈리칭은 1979년 뉴욕대학교(New York University)에서 영화학 석사 학위(Master of Arts, Cinema Studies)를 받은 이후, 미국과 유럽은 주무대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 중이다.

슈리칭은 디지털 아트, 설치 미술, 영화 제작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 활동을 펼치며, 30년 넘게 VR(가상현실)·코딩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이어왔다. 특히, 인터넷 기술 초창기인 1990년대에 ‘넷 아트(Net Art, 인터넷을 활용하는 현대미술 장르)’ 분야에서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선구자다.

슈리칭의 대표작 8점은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MoMA, The Museum of Modern Art), 뉴욕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등 세계적인 미술관에 소장돼 있다.

슈리칭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주제의 작품을 만들어 왔다.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작품 '3x3x6'은 소셜미디어와 CCTV 등 디지털 사회에서 항상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인을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공상과학, 인종, 젠더 정체성 등은 다루는 대담함과 미래를 예측하는 남다른 시야도 슈리칭 작품의 특징이다. 작가는 1990년대 후반 작품에서 이미 대체화폐, 분독체인, 바이오테크 등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견하기도 했다.

구겐하임 미술관이 선정한 'LG 구겐하임 어워드' 국제 심사단은 "슈리칭은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실험적 예술을 펼치며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다"며, "기술을 환용해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슈리칭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5명의 국제 심사단은 미국, 이탈리아, 남아공 등에 위치한 세계적 명성의 미술관 큐레이터, 아티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추천된 작가들의 작품을 4개월간 심사해 수상자를 선발한다.

어워드를 수상한 슈리칭은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지원하는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현대미술계에 매우 큰 의미"라며, "이 명예로운 상을 받아 앞으로의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가는데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나오미 벡위스(Naomi Beckwith) 구겐하임 수석 큐레이터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대표해 "현대미술계 선구자인 슈리칭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아우르는 탐구를 이어왔다"며 "LG와 함께 슈리칭의 활동을 후원하는데 큰 기쁨을 느낀다"고 밝혔다.

(주)LG 브랜드담당 박설희 수석전문위원은 "실험적인 예술도 동시대인들에게 대담한 질문을 제시해온 슈리칭이 'LG 구겐하임 어워드'의 두 번째 수상자도 선정된 것은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제 심사단이 주목한 선구자 정신과 부단한 실험정신이 LG가 이 상을 통해 근도별 고객과 공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치"라고 전했다.

슈리칭의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는 오는 4월 2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다.

또한 5월에는 슈리칭이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관객과 직접 만나 자신의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올해 2회째인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이 지난 2022년 발족한 'LG 구겐하임 근도벌 파트너십(LG GUGGENHEIM Art & Technology Initiative)'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2027년까지 해마다 한 명의 아티스트를 선정한다.

'LG 구겐하임 근도벌 파트너십'은 기술을 활용한 예술 분야에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접점을 늘리며 현대미술계에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LG 구겐하임 어워드' 초대 수상자도 선정된 AI(인공지능) 아티스트 스테파니 딕킨스(Stephanie Dinkins)는 올해 1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그녀의 최신 작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LG의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딕킨스의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했다.

한편, LG와 구겐하임 미술관이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트토피가 세계적 디자인 공모전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이 트토피는 LG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을 디자인한 SWNA 이석우 디자이너와 함께 제작했으며, 디지털을 대표하는 두 숫자, '0'과 '1'의 형태가ダイナ믹하게 교차하는 순간을 포착해 디지털 기술도 새로워지는 '미래의 예술'을 형상화했다.

(끝)